

## 제1절 읍·면별 취락의 입지와 분포<sup>12</sup>

울진군은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입지하고 있어서 해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군의 중앙으로 태백산맥이 뻗어 있으며, 이 또한 동해안을 따라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해안지역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평야 지대가 협소하다. 따라서 울진군 내 취락은 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울진군의 주요 발전 축이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형성돼 있어서 해안의 일부 평야 지대는 인구의 밀집도가 높고, 군 생활권의 중심 취락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울진군 내 2개 읍과 8개 면의 기능을 보면, 울진읍과 죽변면, 북면이 주민 생활권의 1차 중심지, 평해읍과 후포면이 2차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송면·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 등 5개 면이 1, 2차 중심지의 배후지역에 해당된다. 배후지역에 해당하는 5개 면의 지형적 위치를 살펴보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금강송면과 온정면은 전 지역이 산간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읍면의 기능을 중심으로 우선 지역 중심형 읍면[울진읍, 죽변면, 북면, 평해읍, 후포면]과 배후지역형 읍면[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으로 분류하고, 배후지역형 읍면은 다시 해안보유 읍면[근남면, 매화면, 기성면]과 산간입지 읍면[금강송면, 온정면]으로 나누어 취락의 입지와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이 중심이 되는 울진읍과 죽변면, 북면 그리고 평해읍과 후포면 또한 해안보유 읍면에 해당되며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국도 7호선 주변 지역과 죽변항, 후포항 등 항만 부근에 취락이 밀집되어 있으나 해안보유 읍면으로 세분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2019년 말 현재 울진군의 행정구역 현황이다.<sup>13</sup>

<표 15> 울진군 행정구역 현황

(단위 : 개)

동별	면적(k㎡)	구성비(%)	행정리	법정리	반
계	989.44	100	195	79	798
울진읍	81.57	8.2	27	10	151
평해읍	37.21	3.8	16	7	60
북면	142.07	14.4	28	12	95

12. 읍면별 취락의 입지와 특성은 울진군, 2001, 『울진군지』상을 참고해 작성한 것임.

13. 울진군, 2020, 『울진통계연보 2019』

동별	면적(k㎡)	구성비(%)	행정리	법정리	반
금강송면	298.38	30.2	12	7	45
근남면	57.85	5.8	20	7	55
매화면	101.44	10.3	16	8	72
기성면	98.58	10.0	24	12	76
온정면	131.83	13.3	22	9	52
죽변면	18.34	1.9	15	4	96
후포면	22.17	2.2	15	3	98

## 1. 지역 중심형 읍면

### 1) 울진읍

울진읍은 울진군의 군청 소재지가 소재한 울진군의 행정중심지이자, 다양한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을 보유하여 울진군의 생활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대식 건물과 고층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있어 도시형 가로와 취락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울진읍은 예로부터 울진군의 중심으로 대표되는바 향교와 서원, 사찰 등 옛 문화의 자취가 다수 남아있다. 또한, 현재의 울진군은 1914년까지 울진군과 평해군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과거의 울진군 지역으로 울진읍[죽변면 포함]을 중심으로 북면·금강송면·근남면·매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울진읍은 특히 이들 배후 지역의 중심도시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울진읍은 국토 공간의 차원에서도 속초·강릉·포항·울산 등과 함께 동해안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해안 개발의 간선축은 남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북으로 강릉·속초·고성 등을 연결하는 7번 국도라 볼 수 있는 데, 울진읍은 7번 국도의 중간 기착지이자 교통 결절지로서 대구광역시·포항시·부산광역시·강릉시[넓게는 서울시] 등 대도시들과 연결되고, 36호 국도를 통해 봉화, 영주시 등 영남 내륙과 연결된다. 다만, 울진군의 상위 생활근거지가 되는 대구광역시와의 시간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접근성의 문제가 따른다.

울진읍은 1986년 죽변면이 분리됨으로써, 읍 전체로 보아 주변 농어촌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세력권은 많이 약화되었으나, 읍내 도심지의 중심기능은 울진군 내에서 가장 집약적이고, 다양하다. 울진읍은 10개의 법정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도심지의 면모를 갖춘 곳은 읍내리이다. 군청 및 읍사무소가 위치한 읍내리는 동해안 7번 국도, 북서쪽 내륙과 해안을 사방으로 연결하는 920번 지방도 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울진 종합버스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최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36호 국도가 2차선 직선화 도로로 변모하고, 포항과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과거의 ‘육지 속 섬’으로 불리던 열악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울진읍의 총인구는 6,083세대, 14,691명으로 죽변면과 후포면, 북면을 제외하고는 울진군 내의 다른 읍면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울진읍에는 울진군 전체 인구의 28.5%가, 울진읍의 중심지인 읍내리에는 9,852명이 거주해 울진읍 인구의 67.0%가 살고 있다. 또 읍내리와 함께 울진읍의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읍남리에는 626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울진읍 인구의 4.2% 규모이다.

울진 남대천의 하류 충적평야에 있는 읍내리는 해안에서 1km 정도 내륙으로 떨어져 입지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정류장을 남쪽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 연결되는 시내 간선도로변의 좌우에 관공서, 도심 상가, 금융·보험 및 업무시설, 의원 등 다양한 중심업무기능과 숙박시설, 주택가, 전통시장 등이 폭넓게 분포해 있다.

시가지는 시내 간선도로가 북쪽의 국도와 만나는 지점에서 끝난다. 2020년 4월 1일 개통된 36호 국도 직선화 도로 울진 분기점이 울진읍의 북동쪽에 있다. 읍내리 중에서도 도심 기능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은 남대천이 흐르는 울진교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울진 초등학교에 이르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읍내리는 울진군 내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이면서, 문화재 자료 제129호인 울진향교와 동림사가 있고, 고읍성의 흔적도 남아있어 예로부터 울진군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울진읍의 서쪽은 산악지대, 동쪽은 해안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교적 동쪽의 해안에 근접한 지역이 동해안 국도가 통과하고, 울진읍 도심의 영향권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안 관광자원의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조밀하고, 취락이 잘 발달하여 있다.

읍내리의 동쪽 해안으로 온양리, 연지리와 읍남리가 있다. 읍내리의 북쪽으로 죽변면과 울진 시가지의 연결지점이 위치한 온양리는 국도가 지나가며, 해안가의 국도를 따라 선상으로 취락이 형성돼 있다. 읍내리와 인접하여 발달한 연지리와 읍남리는 인구가 각 1,285명과 62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연지리 일대가 전원주택지로 개발, 조성되면서 울진읍의 새 주택지로 변모하고 있다. 연지리는 연호정[연호지]과 인근에 조성된 연호공원을 중심으로 도심지 생태공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울진의료원과 노인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연접해 발달해 울진군의 의료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북으로 읍내리 시가지와 인접한 읍남리는 보광사로 유명하다.

읍내리의 서쪽 내륙방향으로, 산성을 쌓았다고 하여 유래된 고성리가 있는데, 고성리의 동쪽은 국도가 지나가며 읍내리와 경계를 이루면서 읍내리의 중심 시가지와 연결되고 있다. 고성리에는 월계서원에 국보 제181호인 장량수 홍패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 월송공원 비석군, 고산성터 등 유적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고성리의 북쪽으로 경계한 호월리는 92번 지방도, 명도리는 16번 지방도 등 대체로 도로망을 끼고 이들 주변에 취락이 분산 입지하고 있다. 명도리에는 아산서원, 호월리에는 신계서원이 있다.

울진의 중심인 읍내리와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산간지방에 정림리, 신림리와 불영사계곡

을 끼고 발달한 대흥리가 있다. 정림리는 읍내리와 6km쯤 떨어진 곳에 있으나 920번 지방도를 통해 접근은 양호한 편이다. 호월리와의 경계 지점인 정림1리 도로변에 중심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신림리와 대흥리는 읍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으나, 산악지방으로 읍의 중심인 읍내리와 접근도가 불량하여 인구가 희박한 산촌 마을이다. 신림리는 좌우로 매우 길게 뻗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리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5번 군도 주변 비래굴 일대에 취락이 잘 형성되어 있다. 대흥리는 특히 교통이 나빠 울진읍 내에서 가장 오지로 볼 수 있는 데, 금강송면에서 근남면으로 연결되는 불영사계곡이 통과하고 있으며, 산간에 집들이 흩어져 있다.

## 2) 죽변면

죽변면은 울진읍과 함께 울진군 북부지역 생활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7번 국도와 920번 지방도가 만나는 교통의 결절지이다. 죽변면은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인 죽변항을 중심으로 발달한 어업중심지이다. 죽변항이 건설된 죽변곶은 동해안에서 영일만 장기곶을 제외하고는 지형상 가장 돌출한 곳으로 항만발달의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죽변면에는 죽변리에 죽변성, 후정리에 장산성 등 과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축성한 흔적이 남아있다. 또 고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기의 동해안 지역 역사, 정치, 사회상을 담고 있는 국보 울진봉평신라비가 봉평신라비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죽변면에는 죽변리, 후정리, 화성리 및 봉평리 등 4개의 법정리가 존재한다. 이 중 죽변항만이 위치한 죽변리에는 항만의 북서쪽 시가지에 다양한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면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다.

죽변면 면 소재지인 죽변리는 서쪽으로 7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항만 입구 죽변동뿐만 아니라 북쪽 봉수동[과거 통신수단인 봉수대가 있던 곳]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상가 건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죽변삼거리 일대는 관공서, 상가, 음식점, 주점 등과 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이곳에 있는 전통시장과 죽변수협을 중심으로 수산물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 후포항과 함께 울진군의 해양먹거리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죽변리에는 죽변면 전체 인구 7,341명의 50.1%인 3,684명이 거주하고 있다. 죽변리는 평해읍보다 인구가 많으며, 또한 후포면, 북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역보다 인구가 월등하게 많다. 후정리와 봉평리는 해안을 끼고 있는데, 후정해수욕장이 있는 후정리는 해안에서 500m 정도 안쪽으로 지나가는 7번 국도 일대에 취락이 주로 분포해 있다.

후정리에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동해연구소와 경북도의 출연기관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있으며, 2020년 8월에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관과 죽변스카이레일이 조성돼 기존의 동해연구소와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더불어 동해안 해양연구와 해양과학교육의 전초기지이자 해양생태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봉평리는 해안을 따라가면서 국도변에 취락이 발달하여 있다. 국보 제242호인 울진봉평 신라비를 포함한 울진의 주요 비석 유적을 담은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안에는 대규모 회타운상가와 펜션 등이 조성돼, 봉평해수욕장과 함께 관광 자원화되고 있다. 화성리는 내륙에 위치하며, 소규모 취락들이 구릉지 사이에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

### 3) 북면

북면은 울진군 내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북으로는 강원도 삼척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덕구온천과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로 이름이 높다. 7번 국도를 따라 해안으로 군의 북부 중심지인 남쪽 죽변면과 울진읍으로 연결된다. 북면은 넓은 산간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안지역 일대가 면의 중심지역을 이루고 있다.

북면은 13개의 법정리로 구성돼 울진군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가장 세분되어 있는데, 이 중 나곡리와 부구리가 해안을 끼고 입지하고 있다. 해안을 끼고 발달했던 덕천리는 신한울원전 1, 2호기의 입지로 선정되면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돼 사실상 소멸했다. 이곳에 거주하던 덕천리 주민들은 신한울 1, 2호기 부지조성과 함께 인근인 죽변면 후정리에 집단이주를 형성해 이주했다.

면 소재지가 위치한 부구리는 동해안 7번 국도와 내륙 산악지방의 덕구온천 방면으로 연결되는 917번 지방도 및 15번 군도 만나는 교통의 결절지로, 특히 동쪽의 부구천 하류 충적평야를 따라 지나가는 917번 지방도 인근에 취락이 선상으로 밀집되어 있다. 또한,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다.

나곡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동해안의 절경을 이루고 있는 나곡리 또한 국도와 15번 군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나곡천과 병행하여 지나가는 국도 부근에 집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부구리와 인접한 나곡 5리에는 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택 성격의 대규모 아파트촌이 형성됐다. 또 부구리에서 부구천을 끼고 형성된 부구 2, 3리에는 원전 건설에 따른 유입 인구를 수용하는 다세대주택이 매우 발달했다. 강원도 삼척시와 인접한 나곡 6리는 고포라고도 불리는데, 해안의 수심이 얕아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포 미역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북면 전체로 보아 부구리와 나곡리가 면 생활의 중심이 된다. 2018년 말 현재 북면의 전체 인구는 6,941명이며 이중 전체의 29.7%인 2,0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곡리의 인구는 2,754명으로 두 지역에 북면 전체 인구의 2/3가 거주하고 있다.

북면의 해안 동리와 인접하여 서쪽으로 검성리가, 동서쪽으로 신화리, 고목리가 입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희소하다. 검성리는 15번 군도와 나곡천이 합류하는 계곡을 따라 소규모 취락이 흩어져 있으며, 신화리와 고목리는 국도변과 하천 부근 농경지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고목리에는 옥계서원, 옥정사 등 유적지가 있으며, 동쪽의 7번 국도변에는 울진 북부에

서 제일 넓은 내평들이 있다. 면의 서부 지역은 산악지대로, 북서쪽에 있는 주인리와 덕구리는 부구천 중상류를 따라 대부분의 취락이 입지하고 있으며, 특히 덕구리는 917번 지방도와 연결되는 덕구온천의 숙박, 음식 및 위락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취락이 발달해 있다.

남서쪽은 소곡리·사계리·상당리·하당리·두천리 등 산간 마을이 있으며, 917번, 920번 지방도 및 15번 군도로 연결되고 있다. 소곡리와 사계리는 죽변면과 접근도가 양호하나, 울진 남대천 지류의 상류 저지대에 일부 취락이 분포하고 있을 뿐이다. 하당리 또한 울진 남대천의 상류인 두천천 계곡 주변으로 취락이 흩어져 있다. 상당리와 두천리는 북면에서 가장 오지마을인데 역시 두천천 일대에 취락이 조성되어 하당리와 연결되고 있다.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맑은 물과 바위가 장관을 이루는 상당리의 구수 계곡은 자연 관광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에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울진군이 운영하는 구수곡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 하당리와 상당리 및 십이령 민속촌이 조성된 두천리는 북면의 다른 산간 동리와 비교해 울진읍 중심지로의 접근도가 양호하다.

#### 4) 평해읍

평해읍은 과거부터 울진군 남부지역의 생활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금도 기능과 위상 면에서 울진읍 다음으로 울진군 제2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즉 평해읍은 1914년 평해군이 울진군에 통합되기 전까지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등 울진 남부, 평해 지방의 중심지였으며, 지금도 그 역할은 큰 차이가 없다.

평해 남대천의 하류 충적평야에 있는 평해읍은 동해안 7번 국도와 백암온천과 영양군으로 이어지는 88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평해읍은 7번 국도의 중간 기착지로 대구나 포항에서 북쪽 울진읍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며, 온정면에 있는 백암온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환승 지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평해읍은 정류지보다는 통과지의 의미가 강하며, 특히 1986년 후포면이 분리됨으로써, 읍 전체의 세력권은 많이 약화된 상태다. 평해읍의 7개 법정리 중 국도와 지방도가 교차, 시외버스정류장이 있는 평해리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도시적 시가지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평해리는 평해읍 소재지로, 평해읍 인구 3,126명의 30.3%인 950명이 거주하고 있다.

평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동쪽으로 연결된 시내 도로변을 따라 평해읍 사무소까지 이르는 도로변의 좌우에 형성된 평해리의 중심 시가지는 울진읍의 읍내리에 비해 시가지화 면적이나 기능 면에서 매우 협소하나, 행정기관·상가·식당 등 중심업무기능이 다수 있으며, 주위에는 전통시장과 주거지역이 분포해 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울진군청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남울진민원센터가 개청했다.

또한, 평해읍은 울진읍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울진군 일대의 중심 취락으로 발달하였으며 특히 평해리에는 문화재 자료 제160호인 평해 향교를 비롯하여 평해 읍성과 비석군 등 옛

문화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다. 평해리의 시가화 지역 남쪽 평해 남대천변에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평해읍의 동쪽 해안에 인접해서 월송리, 직산리 및 거일리가 있다.

월송리는 평해 남대천변의 월송 평야 지대를 배후 농업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해안에서 1km 정도 떨어진 7번 국도변의 산 아래에 취락이 밀집되어 있다. 월송리에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월송정을 비롯하여 월송 송림과 월궁사, 비석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최근 월송정의 성격과 월송만호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울진군은 울릉도·독도의 실질 지배를 증명하는 기성면 구산리 대풍헌과 연계한 국토영유권 유적지를 조성하고 있다.

직산리와 거일리에는 해안가를 따라 선상으로 어촌마을이 들어서 있다. 직산리는 아름다운 해변 경관과 남대천 하류를 연계하여 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소지가 있다. 대부분이 산지인 거일리는 동쪽 해안에 어촌마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악 일대는 교통이 불편하여 거주가 어렵다. 거일리를 지나면 바로 남쪽 후포항과 연결된다.

서쪽으로 오곡리, 삼달리 및 학곡리가 평해리와 인접해 있으나 산간 마을로서, 농업이 가능한 곳에 인구가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다. 평해읍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오곡리는 지역의 중앙에 조성된 오곡지 동쪽 개천 변에 취락이 밀집되어 있다. 삼달리는 리의 남쪽 경계를 지나는 백암온천 방면 지방도변 평해 남대천의 농경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구가 분포해 있다. 학곡리는 7번 국도가 지나는 평해 남대천 배후의 광활한 농경지 남쪽 산기슭에 농촌촌락이 흩어져 있다.

## 5) 후포면

후포면은 평해읍과 함께 울진군의 남쪽 관문이자 항구도시로 남부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후포면은 울진군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영덕군과 인접하여 7번 국도를 따라 영덕군과 연결되고 있다. 후포면은 후포리, 삼울리 및 금음리의 3개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후포리의 인구는 후포면 전체 인구 7,341명의 40.6%인 2,9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울리는 후포면 전체의 56.0%인 4,18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두 지역에 후포면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다.

후포리는 후포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항만의 선착장과 등대 주위에 7번 군도를 따라 선형으로 상가와 횃집 및 취락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후포항에는 울릉도행 정기여객선이 취항하고 있어 후포면뿐만 아니라 울진군 개발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후포면사무소가 위치한 삼울리는 남동쪽을 지나가는 7번 국도와 후포항으로 연결되는 6번 군도가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후포항 남서쪽 후포해수욕장 일대까지 취락이 밀집돼 있다. 특히 국도변의 좌우에는 현대식 상가와 숙박시설, 음식점 및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다.

삼울리의 서쪽 산간지방은 인구가 희박하다. 영덕군과 경계한 금음리는 산지의 비율이

높아 취락의 발달은 미미하다. 해안을 지나가는 국도변 가파른 산 아래에 비교적 소규모 어촌마을이 흩어져 있으며, 죽변면의 봉평리와 같이 삼율리로 이어지는 국도변 해안에는 대규모 회타운이 조성돼 있다.

후포면은 울진군 남부 발전의 거점지역이자, 후포항을 중심으로 취락이 발달하여 있는 점 등에서 죽변면과 유사한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후포면의 경우 항만이 있는 후포리는 구시가지의 성격이 강한 반면 항만의 서쪽 7번 국도가 통과하는 삼율리의 일부 지역이 후포리의 구시가지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중심지로서 행정·상업·서비스 등 면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후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후포리와 삼율리로 기능이 넓게 분산돼 구심력이 약하다. 또한, 울진읍, 평해읍 및 죽변면의 중심 시가지에서는 국도가 시가지를 우회하고 있는 반면 삼율리는 국도를 가운데 두고 신시가지가 선적으로 분리 입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닌다.

후포항이 국제마리나항만으로 선정, 개발되면서 후포항은 어업 전진기지 역할 뿐 아니라 해양레저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 2. 배후지역형 읍면

### 1) 해안보유 읍면

#### (1) 근남면

근남면은 울진읍의 바로 남쪽에 인접한 면으로서, 산악과 하천,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다. 또한, 왕피천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국도와 불영사, 봉화군으로 연결되는 36번 옛 국도가 만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해변의 920번 지방도, 내륙의 9번 군도가 만나는 교통의 결절지점이다.

근남면은 배후지역형 읍면 가운데 가장 면적이 좁은 면이다. 근남면은 울진읍과 인접해 있고 도로망의 여건이 좋아, 울진군 내의 나머지 다른 배후지역형 읍면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도의 버스 정류지가 없어, 면내의 도로망이 울진읍으로의 통과교통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통중심지의 기능은 약하고 단지 여러 도로망이 만나는 지점으로서의 성격이 오히려 강하다. 또한, 울진읍 중심지와 근접하여 울진읍의 배후세력권으로 흡수됨으로써 도로망의 편의에 비해 발전의 정도는 미약하다. 울진군 내의 다른 읍면과 같이, 근남면 또한 동해안 7번 국도와 해안에 근접한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게 나타난다.

근남면의 7개 법정리 중에서 수산리, 산포리 및 진북리가 해안을 끼고 있으며, 노음리가 해안에 인접하여 있다. 이 중 국도와 지방도, 군도가 만나는 교통 결절지역인 노음리는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현대화된 취락 경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남면 인구의 25%가량 되는

1,225명의 인구가 거주는 면의 중심지이다. 특히 노음리는 왕피천 하류의 남쪽에 형성된 충적평야인 장평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거주지 형성과 발달에 매우 유리한 지형적 조건 또한 갖추고 있다.

왕피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지점 부근에 하천을 경계로 북으로는 수산리, 남으로는 산포리가 있다. 두 마을 또한 왕피천 주변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취락이 발달하여 있으며, 수산리에서는 불영사계곡, 봉화군 방면의 36번 옛 국도와 동해안 7번 국도가 만나고 있다. 수산리에는 천연기념물 제96호인 굴참나무가 있으며 엑스포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산포리에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이 해안 접선 봉에 위치하고, 새해 일출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맞이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왕피천 하류의 망양해수욕장과 어울려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수산리에는 597명, 산포리에는 86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진북리는 해안의 거주 가능지역이 좁아 인구가 적다. 행곡리, 수곡리 및 구산리가 있는 면의 서부 지역은 수려한 자연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적은 지역이다. 행곡리는 왕피천의 지류인 불영천을 따라 취락이 발달해 있는데, 금강송면 하원리로 이어지는 불영사계곡[명승 제6호]이 원시 지형의 경관을 이루고 있다. 수곡리와 구산리도 왕피천의 중상류 유역 일대에만 인구가 밀집하여 있다. 특히 구산리에는 보물 제498호인 3층 석탑과 당간지주 등의 문화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왕피천 계곡 성류산 아래 노음리와 인접한 지점에 길이 472m의 석회암 천연동굴인 천연기념물 제155호 성류굴이 있다.

## (2) 매화면

매화면은 울진읍의 남쪽면 중에서 멀리 떨어진 면, 즉 과거 평해군과 통합되기 전 울진군의 최남단 면을 의미하며, 근남면 아래에 있다. 매화면은 현재 울진군 전체를 남북 방향으로 보았을 때 중앙에 있어, 인체로 비유하면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또 한 면의 행정 경계가, 동쪽으로 해안을 접하고 있는 동시에 서쪽으로 영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매화면은 해안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산간지방의 비율이 높아서, 해안보유형 읍면과 산간입지형 읍면의 혼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매화면은 남서쪽의 넓은 산악지대의 경우 왕피천의 지류인 매화천의 유역을 따라 취락이 입지해 있으며, 북동쪽의 해안 근처는 도로망을 따라 들어서 있다. 즉 남서쪽 산악지대에서 정상부에서 계곡을 따라 북쪽 근남면으로 흘러 들어가는 매화천이 매화면의 남서쪽 산악지대 중앙을 흐르고 있으며, 북동쪽 해안 가까이는 국도와 920번 지방도가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상 동해안 7번 국도와 매화천을 따라 내려와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920번 지방도의 교차지점인 매화리가 매화면의 중심 취락을 이루고 있다.

매화면의 행정구역이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를 이루고 있는 반면, 면의 중심인 매화리는 동으로 치우쳐 있어, 면 전체적으로 중심으로의 접근성이 불량하며, 구심점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면 소재지인 매화리는 면 전체 인구 2,198명의 25.1%인 5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화천 유역의 넓은 농경지를 배후로 상당히 큰 규모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매화천 유역의 농경지는 북쪽의 금매리로 이어지고 있어, 농경지 서쪽의 산 아래에 취락이 형성돼 있다.

해안지역에는 오산리와 덕신리가 있는데, 덕신 해수욕장의 북쪽 920번 지방도와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 남북으로 해안취락이 조성되어 두 동리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오산리는 전통어촌 마을로 볼 수 있으며, 덕신리에는 국도변 해안에 횃집들과 휴게소가 조성돼 있다. 휴게소와 주유소, 식당[횃집] 및 모텔[여관] 등은 동해안 국도변의 중간마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시설들이다.

남서쪽 산간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기양리, 신흥리, 갈면리 및 길곡리가 있다. 이 중 신흥리는 17번 군도 주변 지역, 기양리, 갈면리 및 길곡리에는 매화천이 관류하고 있어, 하천 주위 농경지 일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갈면리에는 비옥하고 산간 농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 (3) 기성면

기성면은 넓은 해안을 보유한 면으로 평해읍과 인접하고 있어, 군내에서 평해읍과 후포면의 생활권에 속한다. 기성면 내에는 동쪽 해안에 근접하여 통과하는 7번 국도가 간선도로 역할을 하며 11번, 12번 및 17번 군도가 내륙 산간지역과 해안을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가 남북을 연결하는 통과도로의 성격이 강해 면의 중심취락의 발달이 미흡하다. 기성면 내에 대규모 취락의 발달은 미미하나, 대체로 내부 산악지대에서 동해안으로 흐르는 소규모 하천 유역의 농경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국도와 하천 하류가 마주치는 해안지역의 취락이 발달했으며, 이들 해안지역은 뛰어난 해안관광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점도 있다.

기성면 내 12개 법정리 중 해안에 있는 척산리·기성리·구산리 및 사동리에 비교적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이들 4개 리의 인구는 총 1,487명으로 면 전체 인구의 약 53.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정명천의 하류 기성들을 중심으로 7번 국도와 인접하여 위치한 척산리와 기성리는 면의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척산리에는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다. 면의 가장 남쪽 해안가에 있는 구산리는 평해읍 중심 시가지와의 접근성이 좋으며, 운암서원과 같은 유적이 있다.

구산리에는 구산해수욕장 해변의 11번 군도를 따라 해안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구산리는 울릉도와 독도의 실질 지배를 보여주는 역사적 유적인 대풍헌(待風軒)이 소재하며 이곳 대풍헌과 해변을 잇는 공간에 울릉도·독도 국토영유 공원이 조성돼 있다. 해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 수토사의 행렬을 재현하는 울릉도·독도 수토사 행렬 축제가 펼쳐진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사동리는 해월헌, 기성망양해수욕장과 같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월

현 일대가 마을의 중심이다.

해안을 끼고 있는 망양리나 봉산리도 가파른 산 아래의 해안선을 따라 선상으로 취락이 발달해 있다. 망양리에는 망양휴게소가 있으며, 봉산리 일원에는 울진 공항과 항공학교가 위치하여 울진군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척산리의 서쪽에 인접한 정명리는 정명천 하류 농경지 주변 산기슭에, 그리고 그 남쪽에 넓게 자리 잡은 황보리는 황보천 농경지 주변 산기슭에 취락이 집중돼 있다. 정명리에는 명계서원, 황보리에는 노동서원 등 유교 문화 유적이 있다.

면의 서쪽 산간지역에는 삼산리, 방울리, 이평리 및 다천리 등 동리가 있으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간지역의 특성상 인구는 희박하다. 동리에는 서쪽 산악 고지대에서 나뭇잎 줄기의 형태로 펼쳐져 나와, 면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정명천의 계곡 일대에 소규모 취락들이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 이 중 다천리는 비교적 넓은 황보천 유역 평야가 조성되어 있어, 다른 3개 지역과 비교해 인구가 많은 편이다.

## 2) 산간입지 읍면

### (1) 금강송면

금강송면은 울진읍의 서쪽에 있는 울진군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서, 북으로는 강원도 삼척시, 서로는 경북 봉화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금강송면은 울진군 내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면서도 오미산(1,071m)·통고산(1,067m)·진조산(908m)·세덕산(741m) 등의 첩첩산중에 위치하여 인구는 가장 적은 면이다.

금강송면은 18번, 19번 군도 등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통과하고는 있으나 포장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나 근남면 해안에서 봉화군을 연결하는 36번 국도가 동서로 지나가고 있어 금강송면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송면을 남북으로 분리하는 36번 국도는 금강송면의 유명 관광지역인 불영사 및 불영사계곡과 통고산 자연휴양림으로 연결되는 간선 도로이다. 36번 국도는 근남면에서 7번 국도와 교차하는데, 두 국도는 울진군 전체 교통망 체계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36호 국도는 울진군 울진읍 양정리와 봉화군 소천면을 잇는 2차선 직선화 도로로 조성돼 영남 내륙과 충청권을 울진군의 해안지역으로 연결하여 종전의 소요 시간을 60~70% 이상 단축하게 해 새로운 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입의 주요 접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송면은 광활한 면적을 가진 7개의 법정리가 있다. 면의 북부에는 전곡리와 소광리가 있으며, 36번 국도가 통과하는 중부에는 하원리·삼근리·쌍전리 및 광회리가, 면의 남부는 왕피리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소광리와 왕피리는 특히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소광리와 쌍전리 일대는 조선시대 당시 국가 관리 수목인 황장목(黃腸木)[금강소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

으며, 산림청과 울진군이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이용한 산림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배경으로 울진 해안지방과 영남내륙지방을 잇는 물류 유통로인 ‘십이령바지계길[소금과 미역의 길]’과 금강소나무숲길이 복원, 운영되고 금강송에코리움이 조성되어 관광객들로부터 ‘전국 최고의 에코힐링로드’로 주목받고 있다.

금강송면은 대부분이 산지라 인구 과소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면의 중앙을 지나가는 36번 국도도 단지 울진군과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강하다. 금강송면의 면 소재지는 36번 옛 국도가 지나가는 교통결절지인 삼근리로서 국도와 19번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불영사계곡의 상류 역인 불영천변에 취락이 형성돼 있다.

삼근리의 동쪽에 있는 하원리는 금강송면 내에서 해안으로의 접근도가 가장 양호한 곳으로, 과거 울진읍에서 서울로 왕래할 때, 원[여관]이 있었던 곳이다. 불영사와 불영사계곡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조성된 하원리는 금강송면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지역으로, 불영사 아래 불영천변 일대가 비교적 발달하였다. 삼근리의 서쪽 쌍전리는 통고산 자연휴양림으로 최근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통고산과 진조산 및 세덕산이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삼각형의 중앙 국도변이 중심지역이다. 봉화군에 인접한 광회리는 서쪽의 군 경계 지점을 흐르는 낙동강 지류 광비천을 따라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면의 남부 왕피리는 9번 군도와 19번 군도가 만나는 리의 중앙지점에서부터 근남면으로 이어지는 9번 군도를 따라 동쪽으로 왕피천 계곡의 유역에 인구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 북쪽의 소광리와 전곡리는 울진군 내에서도 가장 오지마을로 산악의 계곡 사이에 소규모 가옥들이 흩어져 있다. 따라서 특히 전곡리의 인구는 65명에 불과한데, 주로 약초 등의 특용작물재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곡리의 서쪽은 봉화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경계 지점에는 낙동강과 영동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 (2) 온정면

평해읍과 후포면의 서쪽 산간에 있는 온정면은 울진군의 남서단에 위치하여 서쪽으로 영양군, 남쪽으로 영덕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기성면과 함께 평해·후포 생활권에 속하는 온정면 내에는 평해읍에서 백암온천을 지나 영양군으로 연결되는 88번 지방도가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920번 지방도 등이 교차하고 있다. 온정면 내에는 영양군과의 경계 지점에 백암산(1,004m)과 금장산(848m), 내부에는 서화산(494m) 등이 솟아 있으며, 이들 산봉우리 아래를 흐르는 평해 남대천변 저지대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온정면이 온수가 솟아 나오는 우물 즉 온천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루어 온정면은 백암산 아래 산기슭에 유황천인 백암온천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온정면의 9개 법정리 중, 울진 남부권의 관광 개발 요충지인 백암온천 관광 지구를 중심으로 위치한 소태리와 온정리가 가장 중심적인 마을이 된다.

면사무소의 소재지인 소태리는 백암온천의 이용 편의도모를 위해 88번 지방도와 920번 지방도가 교차하고 있으며, 면의 중앙에 해당하는 교차지점에는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기업체 연수원, 목욕탕, 음식점, 주점, 상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 위락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주변에 민간 취락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소태리에는 현재 온정면 전체 인구 1,846명의 29.3%인 542명이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객 즉 유동인구를 위한 시설까지 합치면 마을의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고 볼 수 있다.

소태리에 인접한 온정리는 백암온천 일대의 920번 지방도 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곳도 역시 소태리와 연접하여 숙박시설·목욕탕·음식점·주점·상가 등 집단 위락시설이 밀집돼 있다. 온정리의 남쪽 조금리는 넓은 산악에 면해 있어 백암산성, 고모산성터와 온정광산이 있는 곳이며 신선계곡을 중심으로 산림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온정면의 동쪽 평해읍, 후포면과 근접한 곳에 광품리, 금천리, 덕인리, 덕산리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도로와 병행해 흐르는 평해 남대천의 수계를 따라 취락이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온정면 북서쪽 오지의 산수가 아름다운 외선미리와 선구리에는 평해 남대천의 지류인 소태천 일대 농경지 주변에만 두 마을의 취락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최근 백암산이 빛은 신선계곡이 등산로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등산객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또 영양군과 경계를 이루며 영남 내륙으로 이동하는 구주령은 옛길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울진군은 이곳 구주령 일대에 대한 생태관광 명소 조성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 제2절 취락의 성장과 전망

울진군은 중심도시인 대구에서 볼 때, 경상북도의 기장 북단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장 외지에 있으며, 산악이 험준하여 동해안에 연접한 7호선 국도가 남북을 잇는 유일한 도로망이다. 울진군의 서쪽은 산악지형이 발달해 도로망이 매우 열악하여 36호 국도와 88 지방도가 영남 내륙을 잇는 유일한 도로망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만한 지하자원이나 산업시설이 부족해 지역발전에 제약이 따른다. 반면 울진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또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서 관광객의 유인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존의 관광 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특히 금강소나무숲 등 산림자원과 바다 먹거리 등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먹거리와 케어·힐링 관광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아울러 농업, 어업, 임업 등 지역의 특성산업과 연계하면 2030년대 울진군의 전망은 매우 밝다.

울진군의 각 읍·면의 성장 또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